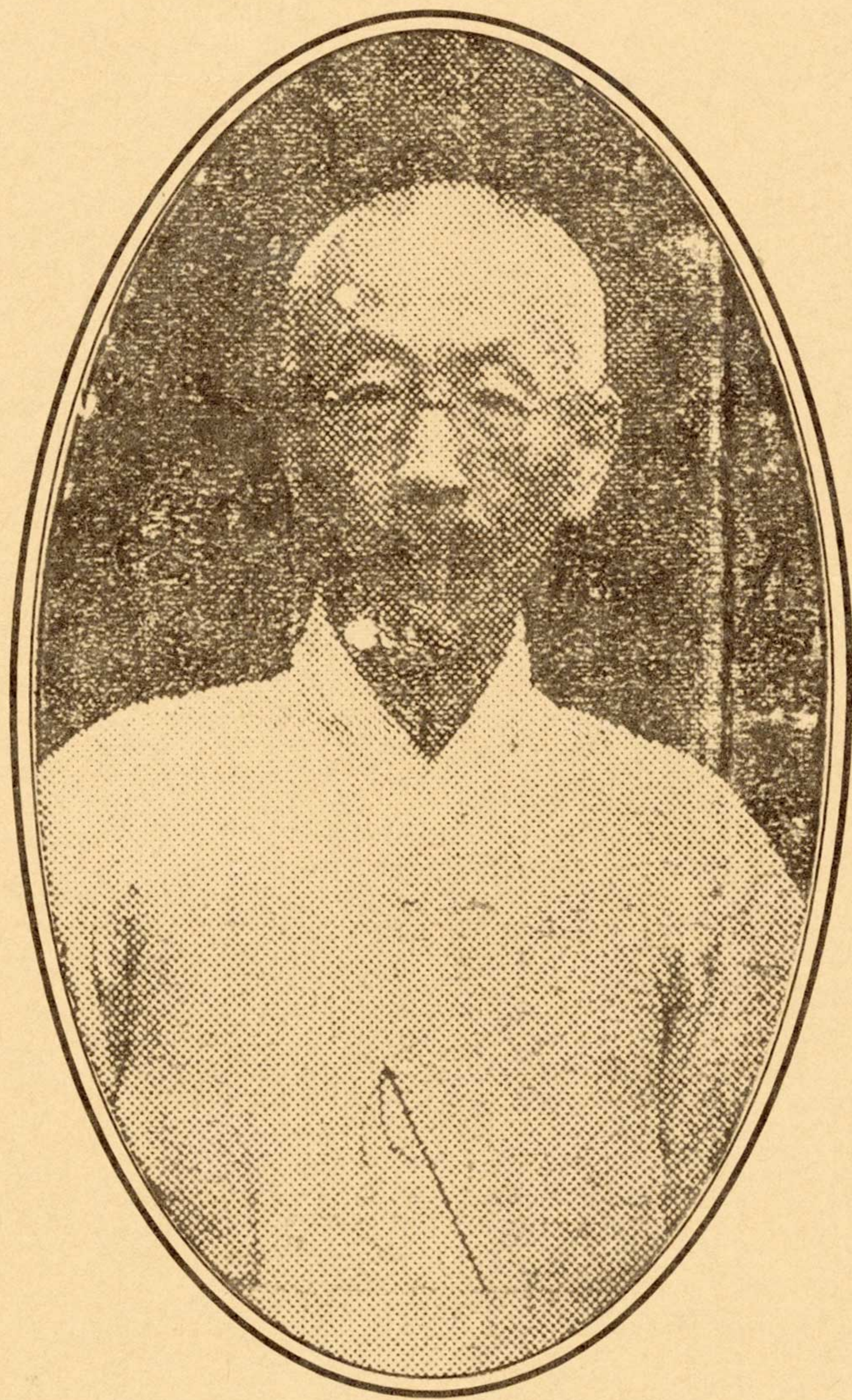


# 능

타이포그라피 잡지 · 히응 | 4호



## Sylexiad Sans Medium

As a dyslexic reader and designer, I began to question the typographic recommendations of the dyslexia organisations. In doing so, I also questioned the established rules of typographic legibility and in particular the notion of word shape. The aim of my research was therefore to test the dyslexia typeface recommendations against my own typeface designs in order to establish the typographic characteristics dyslexic readers actually preferred and why.

sylexiad

영어의 경우 각 글자가 일직선상에 나열되는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단어를 구성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사각형의 틀 안에서 글자들이 가로 또는 세로로 조합되면서 단어를 이룬다. 이러한 독특한 글자조합 방식을 가지는 한국어에서 난독증을 위한 서체 디자인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요인은 영어와 다르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변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스타일: 부리 (serif, san-serif)
2. 비율: 가로폭 (장체, 정체, 평체)
3. 무게: 굵기 (bold, regular, thin)
4. 구조: 초·중·종성/자음 모음의 조합 (네모꼴, 탈네모꼴)

위의 네 가지 형태 변인을 가지고 난독증이 있는 사람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비교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시각적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실험 방법은 난독증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빈도가 높은 음절을 우선으로 조합한 비단어를 제시하고 문자 판독 후 소리내어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다  
의  
을  
고  
가  
하  
지  
한  
서  
은  
기  
어  
도  
나  
사  
아  
자  
대  
들  
인  
시  
라  
수  
해  
정  
계  
일  
보  
부  
적  
만  
제  
과  
주  
면  
장  
전  
상  
여  
문  
구  
우  
국  
소  
내  
동  
요  
성  
무  
마  
생  
신  
원  
화  
말  
경  
위  
조  
모  
오  
야  
비  
할  
관  
중  
회  
안  
선  
계  
미  
학  
때  
치  
간  
세  
실  
공  
물  
개  
연  
진  
방  
유  
교  
명  
당  
바  
각  
등  
분  
통  
음  
용  
운  
산  
식  
단  
체  
민  
발  
재  
작  
입  
속  
영  
금  
저  
터  
차  
현  
심  
행  
반  
남  
처  
불  
업  
양  
결  
건  
역  
본  
집  
예  
직  
난  
감  
노  
달  
설  
강  
점  
태  
천  
배  
질  
호  
법  
못  
살  
날  
종  
울  
후  
타  
표  
군  
형  
술

1-150번째까지 높은 사용 순 음절 빈도 정렬  
(출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 연구실)